

목포시-목포삼학도크루즈, 해양관광 활성화 MOU

지역관광 발전 위한 관광사업 및 상품개발 해양관광 활성화 위한 협력사업 기획 등 약속

목포시는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목포삼학도크루즈와 해양관광 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홍률 시장과 (주)목포삼학도크루즈 정경오 대표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사업 및 상품개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기획 및 추진,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활성화방안 모색 등을 약속했다.

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역량 교류

및 시설물 활용 협력, 관광객 유치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할인혜택 제공 등을 협력기로 했다.

특히 목포시와 (주)목포삼학도크루즈는 관광거점도시 및 해양관광도시 위상에 걸맞는 야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크루즈산업 발전 모색, 할인혜택 제공 등 관광객 유치 및 해양관광 활성화에 뜻을 같이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목포의 관광 경쟁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2000만 관광시대를 넘어, 국제적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고추 TSWV(칼라병) 및 병해충 발생 관리 당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생육기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지 고추 TSWV(칼라병) 등 병해충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TSWV(칼라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병 시 잎과 열매에 원형무늬, 뒤틀림, 열매 칼라색 발현 등의 증상이 나타나 상품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주로 총채벌레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고추 꽃에 숨어 있기 때문에 꽃을 털어서 총채벌레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즉시 방제를 해야 한다. 특히 5월과 6월은 총채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센터는 칼라병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진단이 중요한 만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구비해 정확하고 신속한 예찰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고온으로, 여러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강종만 영광군수 "생활인구 확대에 지방소멸 적극 대응"

영광군,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강종만 영광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으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제공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를 말한다.

영광군은 전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의원, 인구정책 위원, 실과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영광군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선 '늘품 플랫폼'으로 제도약하는 그레이트(GREAT) 영광' 비전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역자원 활용 소득원 개발', '미래 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전략 목표와 18개 세부 사업 방향이 제시됐다.

주요 사업은 '불갑 관광지구 복합 휴식공간 조성', '영광군 지원 주거 지원', '청년 락스타트업 지원·플랫폼 조성', '미래교육재단 설립과 평생학습관 조성', '영광스러운 청년 커뮤니티 조성' 등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영광군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 인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살기 좋은 환경 제공과 매력적인 지역 자원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영광군은 최종보고회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안)·시행계획(안)'에 대해 14일 간의 군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철원의 섬 신의도' 선포 및 조형물 제막식 개최

신안군과 철원군은 5월 12일 신의도에서 양 군의회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체결 2주년을 기념하고 신의도를 철원군의 명예 섬으로 지정하는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심지인 철원군이 동아시아 인권 평화미술관을 조성 중인 신의도를 명예 섬으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 사업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초의선사 차 문화·제다 학교 운영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차 문화 계승 및 제다법 전승 강좌개설



무안군은 지난 13일 초의선사탄생지에서 초의선사 차 문화·제다 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조선의 차 문화 부흥을 이끈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탄생지에서 초의선사의 차 문화를 바로 알리고 제다법 전승을 위하여 개설

무안=이기성 기자

한 강좌로, 이날 개강식에는 사전 교육 신청으로 선발된 교육생 22명을 대상으로 "초의선사의 생애와 삶"이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개강식을 열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초의선사탄생지에서 운영하는 다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잠시 중단됐었지만 이번 초의선사 차 문화·제다 학교와 이달 20일에 개최되는 초의선사탄생문화제를 시작으로 초의차 피크닉 체험, 다도 체험, 한복 입고 초의선사 탄생지 한옥과 자연경관 즐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의선사 차 문화·제다 학교는 이번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떡차 제다법 등 이론수업과 다식 만들기, 다양한 차의 시음과 초의차 만들기 등 실습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영암군의 기초영농교육에 예비농민 뜨거운 참여 열기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예비농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4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개강한 이 교육은,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 적응과 성공 정착을 위한 것.

교육과정은 토양관리, 작목 재배 기초 및 농기계사용 교육, 경영기록장과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김명성발효연구소와 함께 발효이론 교육과 체험 교육을 실시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발효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막연하게 생각하던 귀농·귀촌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매 수업마다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농촌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고, 오늘 배운 발효교육은 관심이 있던 분야라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공부했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암군에 정착할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의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오는 7월까지 매주 화요일, 16회에 걸쳐 62시간 진행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